

##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던 식도이물에 관한 임상적 고찰

충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김재학·오덕진·황경환·황의두·나명훈·유재현·임승평·이영

식도 이물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주로 취급하며, 흉부외과에서는 내시경적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 취급하게 된다.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1980년 7월부터 1995년 8월까지 경험한 식도이물 10례를 대상으로 임상분석 하였다. 환자 연령은 25세에서 71세 까지이며, 평균나이는 45.3세였고 남녀비는 6:4였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연하곤란, 발열, 이물감, 경부 동통이었다. 이물질은 생선뼈가 3례, 거품 약포장지 2례, 맥주병 마개, 육조 물마개, 깨진 사발 조각, 닭고기, 콩이 각각 1례씩이었다.

진단은 수용성 식도 조영제와 식도 내시경을 이용하였다. 10례 중 2례는 과거에 가성소다 섭취로 인해 식도 협착이 있었다. 1례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다. 식도이물은 전례에서 수술적 처치로 제거하였다. 5례는 경부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례는 우측 개흉술을, 1례는 개복하여 위를 통해 위를 역류성으로 통과시켜 제거하였으며, 2례는 경부 농양이 있어 절개 후 배농하였다. 술 후 합병증은 수술후 봉합부위 누출이 3례 있었으나, 수술 치료없이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되었으며, 1례는 일시적인 애성이 있었다. 1례는 외상성 기흉이 발생하였고 폐쇄적 흉관삽관술로 치료하였다. 수술 사망자는 없었다.